

# 광주시, 주민자치 크라우드 펀딩 ‘절반의 성공’

### 14개 프로젝트 목표액 42% 2886만원 모금 홍보부족으로 7개는 목표액의 10% 못채워

광주시가 새로운 주민자치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관심을 모았던 크라우드 펀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펀딩은 목표액을 넘어섰지만, 일부는 목표액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내놓은 다양한 정책과 지역의 현안 등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해결하고자 비영리 단체가 제안한 14개 프로젝트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펀딩대회를 열었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모금하는 것을 말한다.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말이다.

시민단체의 자발적 펀딩에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는 이 크라우드 펀딩은 전국 지자체에서 첫 사례로 평가됐다.

14개 프로젝트 목표 모금액은 총 6900만원으로 27일 기준 41.8%인 2886만원이 모였다.

문제는 ▲친환경 대안 전기 자전거 ▲5·18 관련 책자 증보판 제작 등 2건만 목표액을 달성했을 뿐 모금액이 한푼도 없는 등 나머지는 실적이 저조하다.

절반을 넘는 프로젝트도 ▲임을 위한 행진곡 뮤지컬 제작(73%) ▲아파트 관리비 정보화사업(90%) ▲소아암 어린이 돕기(62%) 등 3개뿐이다.

절반인 7개 프로젝트가 목표액(5000만원)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광주시는 모금과는 별도 심사를 통해

1700만원을 매칭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모금액의 희비가 엇갈리는 데는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생소한데다 홍보부족, 사업 성격의 애매모호함 등으로 상당수 프로젝트의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해결한다는 이 프로젝트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 전남도 혁신도시서 한마당 행사

전남도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과 도민의 화합 축제인 2017년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오는 7월 5일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행복한 소비의 날”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500여 명의 사회적경제 기업인과 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장조경재혁신센터의 전문 품평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촉전(프리마켓)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예술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준비됐다.

특히 올해는 도민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도록 야외 빛가람 호수공원 중앙에 메인 무대를 설치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은 28일 오후 중국 다롄 콘래드호텔 주리치홀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뉴챔피언 연차총회’(하계 다보스포럼)의 세션 중 하나인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휴먼시티’를 주제로 발표했다.

## “친환경차 선도도시 광주, 스마트 휴먼시티 꿈꾼다”

윤장현 시장, 다보스 포럼서 밝혀

윤장현 광주시장은 28일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광주시는 자동차가 인간에게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단초가 될 ‘스마트 휴먼시티’를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중국 라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제11차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본주의적 가치와 철학이

담긴 사람 중심의 기술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이라는 세션의 주제발표에서 윤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휴먼시티’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시장은 “광주는 인간 존엄을 역사 속에서 지키고 가치 수호를 위해 투쟁했고 아시아 인권현장을 최초 선연한 만큼 인간 중심의 스마트 휴먼시티 구축은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는 안전과 힘을 모아 에너지 벨리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여기에 수소차, 전기차를 미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

는 등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나아가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매년 1월 열리는 다보스포럼(스위스)과 함께 세계 경제와 각종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인 이 하계 경제포럼은 차세대 리더들의 포럼이다.

올해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실현’으로 윤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에너지벨리, 문화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아 포럼 초청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친환경 미래자동차 도시를 꿈

꾸는 광주의 현재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하는 스마트 휴먼시티의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스마트 휴먼시티 모델은 포럼에 참석한 90여 개국 1천500여 명의 정·재계 인사와 학자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윤 시장은 앞서 올해 1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EV100포럼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가한 바 있다.

윤 시장은 발제에 이어 자나 로젠만 미국 에어버스 국방 우주집행위원, 오노 밴드 하젠 네덜란드 엔스헤데 시장 등과 토론했다.

소이치로 타카시마 일본 후쿠오카 시장과는 개별 면담을 하고 2019년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자동차와 로봇의 만남

### 국제그린카·로봇산업전 다음달 6~8일 DJ센터

2017 국제그린카전시회와 광주국제로봇산업전이 다음 달 6~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째인 이들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그린카 전시회는 20여 개국 200여개 업체가, 로봇전은 10개국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모두 550여 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와 로봇기술 종합 전시회다.

특히 국제그린카전시회는 국내 최초의 그린카 전문전시회이자 관련 전시회 중 국내 유일 국제전시연합(UFI)의 국제인증증을 받았다. 외국 60여개 업체가 대표 제품을 선보이는 등 친환경자동차의 세계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기업 기아자동차의 쏘울(EV)을 비롯해 닛산 리프(EV), GM 볼트(EV) 등이 전시되고 평소 관람하기 어려운 파워프라이머의 EV 스포츠카인 ‘에브자나’와 EV트럭, 농업용 전기차, 수소차, e-스쿠터 등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만날 수 있다.

플랜트를 비롯해 영국,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유명 기업이 전기모터, 계측기기, 소프트웨어 등 전기차 구동에 관한 다양한 핵심 기술도 선보인다.

로봇산업전은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드론 & 가상현실 등 최첨단 종합 로봇기술과 일선에서 만나기 어려운 전문 산업용 로봇들이 대거 전시된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과 산업용 로봇, 치과용 로봇, 농업 및 방재용 로봇 등 다양한 전문 로봇이 관람객을 만난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필드로봇 특별관에서는 달 탐사로봇, 원자력 발전소용 검사로봇, 재난구조용 로봇 등 인간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주는 현장로봇이 관람객에게 로봇의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순경총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28일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의 육성을 통한 시너지가 필요하다”며 “전시회 동시 개최를 통해 두 산업의 융합과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예결특위원 못해 본 의원 10명

특정 지역구 독차지... 편중 심각

예결특위원 지역 편중 현상도 심했다. 예결특위원의 경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예결특위원이 어느 지역구냐에 따라 전남도 예산 배분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해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그간 단 한 명도 예결특위원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함평·장성·진도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1명씩, 나주·담양·구례·고흥·보성·강진·영암·영광 출신 의원들은 2명이 역임했다.

반면 목포는 4명(중복 포함), 여수·순천은 6명(“)이 예결특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해남과 대조를 이뤘다.

해당 지역구 의원 수가 다른 시·군 지역구 의원 수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예결특위원 선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A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임기 내 마지막 갑두인 예결특위원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 예결특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예결특위 4기 구성 때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과거 선임전력 등을 고려해 예결특위원을 선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